

로저 뒤랑

앙리 뒤낭

1828 - 1910



적십자 창립 당시의 앙리 뒤낭

“어제의 유토피아는 내일의 현실이다.”

앙리 뒤낭

Original Cover by Roger Pfund's workshop

Original French edition:
Éditions Slatkine, Geneve, 2010



© Humanitarian Geneva

route du Grand-Lancy 92 1212 Grand-Lancy Suisse
president@shd.ch www.humanitarian-geneva.org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Korean Red Cross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대한적십자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91546-23-3

발간을 기념하며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는 인생의 전환점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미처 깨닫지 못할 정도의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의지로 이루어 낸 원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여러 상호작용과 함께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생한 앙리 뒤낭은 중산층 가정에서 잘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슬페리노에서 맞닥뜨린 인간의 비극은 그의 인생을 운명적으로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가 만든 변화는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선구자이자 전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로서 오늘날의 앙리 뒤낭을 있게 하였습니다.

2011년은 앙리 뒤낭이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우리는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쉽지 않은 인생을 지나온 앙리의 고귀한 삶을 이 전기(傳記)를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동 전기(傳記)는 그저 한 개인의 삶을 조명했다기 보다는, 앙리가 고민하고 좌절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집념의 산물인 적십자가 어떠한 이들의 노력과 힘든 여정을 거쳐 주변의 협력을 얻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앙리 뒤낭이 누리던 시대는 경제개발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이룬 현대와는 사뭇 확연한 환경적 변화의 차이를 보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서로 도우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도주의'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앙리 뒤낭의 멋진 생각으로 시작된 세대와 지역, 종교, 인종, 문화를 넘어 함께하는 '인도주의' 실천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은지 156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에도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정신이 보여주는 불변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인물인 앙리 뒤낭의 전기(傳記)를 한글로 번역하여 국내에 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주신 저자(著者) 로저 뒤낭(Roger Durand)께 감사를 드리며 인도법연구소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1.12.

대한적십자사 총재 유 중 근

감사의 말

우선 이 전기를 쓰고 출간하는데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특히 프랑스와 브뤼옹, 장 다니에르 칸도, 크리스티앙 뒤낭, 올리비에 장 뒤낭, 니콜라 뒤랑, 안 마리 구기스베르그, 토니 구기스베르그, 마들렌 니에를레, 이반 슬라트키네제씨가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앙리 뒤낭의 생애에 대한 관심과 그의 공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책의 출간을 후원해주신 무르그 달그 은행에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은행의 파트너인 피에르-앙드레 무르그 달그씨의 외가는 앙리 뒤낭 남동생의 직계후손이다. 뒤낭의 남동생 다니에르는 마리 앙드리앵이라는 딸이 있었다. 그녀는 조르주 비스와 결혼해 피에르 비스라는 아들을 두었고, 그의 아들인 피에레트 비스는 무르그 달그 은행의 수석 파트너인 조르주 에밀 무르그 달그와 결혼했다. 지난 15년 동안 무르그 달그 은행은 피에레트 무르그 달그-비스와 이 전기의 저자에 의해 제정된 앙리뒤낭 상을 후원해 왔다. 지금까지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있는 그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초판발행 2011년 12월 20일
· 발행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 편집 및 디자인 에이치크리에이티브

안리 뒤낭보다 더 기구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그는 솔페리노 전투(1859년 6월 24일)의 참상을 보고 나서 자신의 목격담을 토대로 『솔페리노의 회상』을 발표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훗날 적십자와 제네바협약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그는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1867년 파산의 대가로 빚더미에 올라앉으며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다. 한때 황제와 장관들로부터 귀빈대접을 받았던 그는 배고픔에 굶주리고 누더기 옷을 입어야 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빈곤에 허덕일지언정 대의명분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뒤낭은 전쟁포로의 보호, '세계도서관' 사업, 여성의 권리, 국제적인 중재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활약을 펼쳤다. 몇 년간의 비참한 떠돌이 생활 끝에 그는 재기에 안간힘을 썼고 마침내 1901년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1910년 10월 30일 하이덴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 전기의 목적은 위대한 사회사업가 뒤낭의 중요한 면모인 원대한 비전, 열정과 관대함을 소개하고 동시에 피해망상증을 비롯한 그의 허물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 전 인류의 긍지를 드높인 뒤낭의 발상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제네바 태생의 역사학자 로저 뒤랑은 1975년 6월 24일 앙리뒤낭협회를 창립한 후 35년 동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뒤낭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기욤 뒤푸르, 엘리 뒤코밍, 귀스타브 아도르 같은 인도주의 활동의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중요한 책을 집필했다.